

악취 때문에...72살 '장성 성산 은행나무' 이사 시작

나무 뿌리는 도로 파손
열매 악취 7년 민원 해소
장성천 일원으로 107그루 이식



장성군이 장성읍 성산마을 도로변 0.5km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 107그루를 장성천 일원으로 이식을 시작했다. <장성군 제공>

'보존과 제거'의 기로에 놓였던 72년 수령을 자랑하는 황금빛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이식으로 새로운 모습을 찾게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성산마을 도로변 0.5km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 107그루를 장성천 일원으로 이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전체 126그루였지만 19그루는 병들어 제거했다. 성산 은행나무 가로수 길은 열매와 잎을 채취해 주민 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0년대에 식재된 가로수다. 마을을 노랗게 물들인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지라난 뿌리가 보도블록을 망가뜨리거나 건물 담장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 갑

소로 바닥에 쌓인 채 방치된 열매들은 악취를 지어 냈다. 장성군과 성산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 고민해 왔다. 수 차례에 걸친 주

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군민참여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장성군과 지역민들은 은행나무 이식 장소로 마을과 가까운 장성소방서 옆 장성천변을 최종 낙점했다. 장성군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이식 작업에 착수했다. 성산마을 주민 이모씨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은행나무를 떠나보내는데는 생애에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장성천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될 장성천 일대를 마을의 역사가 담긴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나무가 있던 도로변은 한층 특 인 경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나무를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0년 추억을 품은 성산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경관으로 재탄생시켜 성산마을의 역사·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17일 착공 2025년 준공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 조감도.

전남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국립나주박물관이 첨단기술을 문화영역에 접목한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박물관 후원에서 '디지털 복합문화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기존 본관 건물에서 공간적 한계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연장, 어린이박물관, 미래형 수장고와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나주 반남면 일대 고분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건축 디자인은 고분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통 건축의 원리인 차경 개념을 구체화해 고분과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국립나주박물관의 경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건물 연면적은 4393㎡(1328평)로 주요 시설인 공연장은 300석 규모이다.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을 갖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래형 수장고는 호남권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최신 설비와 보관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은화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디지털 복합문화관'이 건립되면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흥지역 2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13개 중·고교 모두 남녀공학으로

올해부터 장흥지역 2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면서 지역 13개 중·고교가 모두 남녀공학 학교가 됐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장흥중학교와 장흥향원중학교에 남·여학생 모두 입학한다고 8일 밝혔다. 장흥향원중은 장흥여중이 올해부터 바뀐 학교명이다. 1946년 개교한 장흥중과 1966년 문을 연 장흥향원중은 각각 남학생, 여학생만 받아 교육해왔다. 두 학교에 대한 남녀 공학 전환은 장흥지역의 숙원이었다. 올해는 장흥중에 남학생 38명, 여학생 36명 등 모두 74명이 입학했다.

장흥향원중에는 여학생 35명, 남학생 36명 등 71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이들 2개 학교가 남녀 공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장흥지역 9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는 모두 남녀 학생 모두 공부하게 됐다.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장흥 남녀공학추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발족한 뒤 남녀 공학 전환을 준비해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설문조사·찬반 투표를 벌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장흥교육지원청 체제개편(안) 검토 등에 참여했다. 58년 만에 처음 남학생을 받는 장흥향원중에 입학한 이모(14)군은 "2학년, 3학년 선배가 모두 여자라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남자 입학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중학교 2곳의 숙원 과제가 해결되면서 면학 풍토 조성



장흥향원중학교(옛 장흥여중)가 최근 입학식을 열고 개교 이후 58년 만에 처음 남자 입학생을 받았다.

학교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연 매출액 30억 미만 가맹점만 허용



강진원(왼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진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개편한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원, 모바일(제로페이)은 35만원이며 10%를 할인 받아 63만원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또 5월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3월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지류 상품권을 제작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442억원어치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밭에서 나는 보양식 장성 미나리 본격 출하



다른 봄철 입맛을 확 살려줄 장성 미나리가 수확기를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다. <사진> 장성 미나리는 일조량이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환경에서 재배해 특유의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새콤달콤한 초무침과 나물로 먹어도 좋지만 삼겹살 등 육류와 음식 궁합이 좋아 찜으로 먹어도 좋다. 미나리는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음식으로 항산화, 항암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내에 유익한 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장성 미나리는 밤 동안 줄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웠다 아침이 되면 물을 빼는 '밭 미나리' 방식으로 길러낸다. 친환경농법을 적용해 데치 않고 생채로 먹을 수 있어 미나리 고유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제철 미나리는 밭에서 나는 봄철 보양식이라 할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채소"라며 "은 가족 안심 먹거리 '장성 미나리'로 봄철 건강을 챙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나리 출하는 오는 4월 말까지 이어진다.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 또는 한마음공동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택배 구입도 가능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주민과의 대화 성료...건의·애로 409건 접수

9일간 20개 읍·면 순회

나주시가 민선8기 첫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의·애로 해결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달 15일 금천면을 시작으로 3일 공산면까지 운병태 시장과 20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9일간 오전·오후 일정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대화는 2023년 주요 시정 방향과 시책 브리핑, 읍·면·동정 보고, 대화·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운병태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시정 브리핑, 동정 보고를 간소화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건의·애로사항 수렴과 주민 정책제안 시간 비중을 최대한 늘렸다. 현장 대화와 서면을 통해 수렴된 주민 건의·애로사항은 읍·면·동별 평균 20건 이상으로 총 409건이 접수됐다. 소관 국별 통계 건수는 마을 안길,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안전도시건설국이 25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문화환경국(14%), 미래전략산업국(9%), 농업기술센터(8%), 행정복지국(5%), 실·보조(1%) 순으로 나타났다. SRP(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



운병태 나주시장이 민선8기 첫 주민과의 대화 방문자인 남평읍을 찾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소 재가동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리,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이전, 퇴비사업장 악취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 확대, 체육 나대용 장군 생가 일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자전거길 개선-파크골프장 신설, 119지역대 설치, 면 지역 반려동물 순회 진료 등 복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레저·체육 등 분야별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는 주민 건의·애로사항에 대한 4월 초 주

민과의 대화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 상황과 최종 결과를 1대 1로 당사자에게 알려 시장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안 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시급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현안·건의 사업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함평 한 달 여행하기 과제 수행 경비 지원 20일까지 참가자 모집

함평군이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3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평을 관광하며 함평군에서 제시한 홍보과제를 수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외 거주자도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7~30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후기 작성, 나만의 함평 숨은 명소 발굴하기 등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을 하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